

# AI 시대의 견우와 직녀



작가

AI도움받아 0김철삼

# 작가프로필



백산면 석교길의 정겨운 풍경을 닮은 동화 작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어여쁜 손주들은 제 이야기의 소중한 영감입니다. 평소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세상을 배우길 즐겨, 아이들 사이에서는 다정한 '컴퓨터 박사님'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가을날 은은히 피어나는 국화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따스한 온기와 깊은 향기를 전하는 동화를 짓고 싶습니다. 손주를 보듬는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의 꿈을 안아주는 동화책을 써 내려갑니다.

2026년 5월부터 기획, 7월 완성

김상철

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전  
래동화에 'AI 시대'의 상상력을 더한 특  
별한 패러디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세  
상이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다독이는  
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지혜니까요.  
우리는 AI와 도란도란 소통하며 그림을  
그리고, 부안의 고운 말씨로 이야기를  
새롭게 엮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다정하게 손잡고 디지털 세상을 달리는  
등 상상력 가득한 패러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부안의 맑은 바람을 닮은 이 책이 여러  
분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되길 바랍  
니다. 정성껏 빚어낸 'AI 시대 패러디 전  
래동화' 속으로 다 함께 떠나볼까요?



## 1장. 은하수 건너 두 마을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데이터 은하수가 흐르고 있었어요."

은하수 동쪽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소를 키우는 목동 견우가 살고, 서쪽에는 알록 달록 빛의 실을 짜는 디자이너 직녀가 살았지요.

"오늘도 내가 만든 로봇 소들에게 맛있는 풀을 주어야지!"

"나도 별빛을 모아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옷을 만들어야겠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던 두 사람에게 곧 생각지도 못한 특별한 일이 일어날 예정이었어요.

## 2장. 운명적인 만남

"음매~ 음매!"



견우의 귀여운 로봇 소들이 은하수를 지나 직녀의 작업실 앞까지 신나게 달려갔어요.

"어머! 동글동글 정말 귀여운 소들이 네?"

"직녀야 미안해! 소들이 네 비단을 어지럽히지 않게 잘 보살필게."

마음씨 착한 견우와 따뜻한 직녀는 금세 친해졌지요.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 뒤로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 3장. 일을 잊어버린 두 사람

"견우야, 오늘도 같이 비밀 놀이동산으로 놀러 가자!"

"좋아, 직녀야! 소들은 알아서 풀을 뜯겠지!"

두 사람은 매일 대화하느라 일을 팽개치기 시작했어요. 소들은 들판을 헤매고, 별빛 옷감은 하염없이 엉켜버렸습니다.

"이놈들! 할 일을 잊고 놀기만 하다니!"

하늘 세상을 다스리는 옥황상제 임금님의 엄청난 호통 소리가 온 우주에 울려 퍼졌어요



## 4장. 붉은 경고창과 이별

"너희는 서로에게서 멀리 떨어져 다시 열심히 일하도록 하여라!"

화가 난 임금님은 은하수 한가운데에 거대한 '\*\*'붉은 오류 경고창 벽'\*\*을 세워버렸어요.

"안 돼! 건우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

"직녀야!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니?"

이제 둘은 화면도, 메시지도 볼 수 없게 되었고 차가운 빨간 벽만이 둘 사이를 가로막을 뿐이었어요.



5장. 1년에 단 하루, 7월 7일

"흑흑, 직녀가 너무 보고 싶어..."

슬픔에 빠진 두 사람을 보며 임금님이  
딱 한 가지 약속을 내려주었어요.

"각자 일을 다시 열심히 한다면, 1년에  
딱 한 번! 7월 7일에 만나는 것을 허락  
하마."

견우와 직녀는 눈물을 닦고 밤낮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7월 7일이 찾아왔습니다.



## 6장. 은하수 앞에서 흘린 눈물

"직녀야! 내가 여기 있어! 하지만 벽이 너무 높아!"

"견우야! 나도 네가 보여! 하지만 은하수가 너무 넓어 건너갈 수 없어!"

두 사람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안타까운 눈물만 흘렸어요. 두 사람이 흘린 눈물은 쏟아지는 큰빗줄기가 되어 땅으로 떨어졌지요. 바로 그때, 하늘 저편에서 수많은 날갯짓 소리와 함께 뽀뽀거리는 신호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 7장. 까치와 까마귀, 그리고 스마트폰 요정들

"지저귀! 지저귀! 견우님, 직녀님! 울지  
마세요!"

두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까치와  
까마귀들이 힘차게 날아왔어요. 거기에  
견우의 스마트폰 요정들도 신나게 달려  
왔지요.

"우리가 두 사람을 위해 은하수 위로 길  
을 만들어 줄게요!"

새들과 요정들은 서로의 몸과 와이파이  
무지개 실을 엮어 은하수 한가운데로 뚫  
어들이기 시작했어요.

8장. 은하수에 놓인 오작교

"차곡, 차곡!"

까마귀와 까치들은 머리를 맞대어 다리를 만들고, 스마트폰 요정들은 반짝이는 무지개 실을 단단히 걸어주었어요.

"와! 은하수 위에 세상에서 가장 멋진 다리가 만들어졌어!"

까치와 까마귀, 그리고 요정들이 힘을 합쳐 만든 신비로운 다리 '\*\*'오작교' \*\*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 9장. 감격적인 재회

"직녀야!"

"견우야!"

두 사람은 오작교 다리 위로 달려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보고 싶었어. 열심히 일하며 오늘만을 기다렸단다."

"나도 그래! 우리를 위해 다리를 만들어 준 친구들아,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일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다리를 만든 모습에, 멀리서 지켜보던 임금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감동했습니다.

## 10장. 해피엔딩

"열심히 일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견우와 직녀는 매년 7월 7일이 되면 오작교 위에서 반갑게 만나 행복한 안부를 나눕니다.

오늘 밤도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반짝이는 스마트폰 요정들과 새들이 만들어 준 다리 위에서 견우와 직녀가 밝게 웃고 있습니다.

• 끝 -



